

보건·의료 삶의 질 세계57위

수명·의사수등 열악...평균지표는 32위

96.
5.28

보건사회연 국제비교

오룡 기자

한국인의 '삶의 질'은 세계 32위에 그치고 보건·의료 분야의 질은 57위로 크게 뒤쳐져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원장 연하청)은 27일 서울 불광동 보사연 대회의실에서 21세기 경제장기구상 복지부문 공청회를 열고 '삶의 질 국제비교' 결과 한국의 평균지표가 세계 1백74개국 중 32위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부문별로는 △경제활동 35위 △문화 23위 △교육 22위 등으로 평가됐다.

특히 보건 부문은 △남자 평균수명 59위 △여자 평균수명 42위 △영아 생존율 58위 △65살 이상 인구비율 62위 등 종합 57위로 세계 수준에서 뒤떨어진 상태로 나타났다.

보건부문 종합순위는 스웨덴이 1위, 일본이 3위, 미국이 20위를 차지했으며, 포르투갈(21위) 홍콩(22위) 불가리아(29위) 폴란드(37위) 싱가포르(39위) 등 경제 수준이 우리나라와 비슷하거나 못한 나라들이 우리보다 더 순위가 높았다.

남녀 평균수명과 영아 생존율은 모두 일본이 1위, 65살 이상 인구비율은 스웨덴이 1위였다.

95년 현재 한국인의 평균수명은 72.9살, 영아사망률은 출생 1천명당 12.8명, 의사 1인당 인구수 9백62명으로, 스웨덴 등 북유럽 5개국과 스위스 평균치인 △77살 △7명 △4백1명에 크게 못미쳤다.

정기원 보사연 사회복지연구실장은 이날 주제발표를 통해 "지난 30여년간 연평균 8% 이상의 경제성장을 지속해 1인당 국민소득 1만달러 시대에 진입했으나 삶의 질은 경제발전 정도에 크게 뒤지고 있다"며 "경

제성장에 걸맞는 복지·생활 욕구가 충족되지 않아 사회갈등이 깊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사회복지와 경제발전이 상충관계에 놓일 가능성이 많은 구호 차원의 소비적 복지정책을 지양하고 상호보완 관계로 이끄는 생산적·예방적 정책을 지향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정 실장은 이어 2020년까지 보건·복지 수준을 서방선진 7개국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전국민의 사회보험 급여 혜택 △취약계층에 대한 최저생계비 완전보장 △저소득층 자립지원체제 완비 △여성의 연금 수급권 확보 △평생보험 차원의 건강보험제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한 '복지 비전 2020'을 제시했다.

보사원의 이번 조사는 유엔 인간개발 보고서와 통계청의 〈한국의 사회지표〉, 복지부의 〈보건사회통계연보〉 등을 기초자료로 자체 분석한 것이다.